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대한 연구: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른 방법론적 융합\*

조준용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Life Experiences and Prospects of Welfare/Poverty Exit of the Poor with Work Ability: Mixed Methodology using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

Joon-Yong Jo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혼합방법론 중 순차적 탐구전략을 활용하여 질적·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 웨이브 중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이들이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를 탈빈곤 전망 맥락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라, 빈곤층의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은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전망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탈빈곤정책이 물질적 지원 외에도 빈곤층의 생활전망을 제고하는 심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탈수급/탈빈곤 전망, 질적·양적연구, 순차적 탐구전략, 혼합방법론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life experiences and prospects of poverty/welfare exit of the poor with work ability utilizing Mixed methodology. Based on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 it qualitatively analyzes 3 waves of qualitative panel data linked to Korea Welfare Panel Study(KWPS) and presents life changes of 14 poor in the context of their prospects of welfare/poverty exit. Then it proposes hypotheses on the role of education, household economy expectation, self-esteem in the prospects of poverty/welfare exit following the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 to quantitatively test qualitative findings utilizing KWPS(7th). The outcom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suggest that household economy expectation plays mediating role between education and the prospects of welfare/poverty exit. This implies that anti-poverty policy needs to consider a psychological approach to enhance household economy expectations of the poor as well as other material support.

**Key Words** : Poor with Work Ability, Prospects of Welfare/Poverty Exit, Qualitative·Quantitative Study,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 Mixed Methodology

\* 본 논문은 저자가 연구자로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3차)] 9장의 내용을 보완, 발전시킨 것임.  
Received 5 July 2016, Revised 29 August 20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Joon-Yong Jo(Hallym University)  
Email: joyhallym@hallym.ac.kr

## 1. 서론

빈곤 연구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는 빈곤의 진입과 탈피, 혹은 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과 탈피를 설명하는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일 것이다. 이 주제는 초창기에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노동시장 변수 등을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나타났으며[1,2,3,4,5,6,7], 이후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나 수급권자의 심리적 요인이 탈빈곤이나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들이 진행되었다[8,9,10].

이러한 빈곤 역동성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되었는데, 특히 중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변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 가능한 인과적 관계에 대한 설명들은,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거시 빈곤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에 대한 양적연구는 연구자 혹은 정책가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쉬우며, 측정 변수들은 빈곤층의 삶의 경험이 내포한 심도 깊은 현상의 본질을 하나의 수치로 단순화하고 있어,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11,12]. 이러한 측면에서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며, 그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탈빈곤과 탈수급을 연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인식론의 기반을 둔 지식의 탐구와 연구방법론의 융합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양적분석으로 확인하는 순차적 탐구전략(Sequential Exploratory Design)에 따른 연구설계[13,14]를 사용하여, 빈곤연구의 방법론적 융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2011-2013) 중 세 개의 웨이브 자료를 모두 갖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를 대상으로, 이들이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과 탈수급 전망에 대한 질적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 연구대상자들의 향후 전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까지 이루어진 3년간의 인터뷰 자료 검토 결과 아직도 빈곤지위나 수급자격의 변화가 동태적으로 관찰된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은 점도 있지만, 기존연구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탈빈곤 및 탈수급 전망이 실질적인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8]. 이후 질적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확인하기 위한 양적분석을 실시하여, 질적분석에서 도출된 경험적 가설을 변량분석을 통해 탈수급 유형에 따른 생활전망의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은 시도한다. 이후 교육과 생활형편, 자존감 및 탈수급/탈빈곤 전망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도한다. 이러한 질적·양적분석의 방법론적인 융합은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양적연구 편향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내부자 목소리에 기반하여 빈곤의 동태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빈곤 역동성 및 탈수급/탈빈곤

빈곤 역동성(poverty dynamics)은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올라가는 상태의 전환(transition), 즉, 빈곤으로의 진입(entry), 탈피(exit), 혹은 재진입(reentry)을 의미하는 것이다[15].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빈곤 역동성과 관련하여 빈곤상태를 벗어나는 의미의 탈빈곤이라는 용어는, 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상태를 벗어나는 탈수급과 종종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엄밀히 말해 빈곤층의 탈빈곤과 탈수급은 다른 개념이다[9,16,17]. 왜냐하면 탈빈곤은 탈수급의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는 개념으로서, 탈수급이 되어도 탈빈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를 넘어서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 이를 탈빈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학자들은 탈수급 형태를 단순히 ‘제도적 탈수급’을 한 것과 ‘탈빈곤적 탈수급’을 한 경우로 분리하거나 [9,15], ‘행정적’ 탈수급과 ‘성공적’ 탈수급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6]. 이때 ‘제도적’ 탈수급이나 ‘행정적’ 탈수급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탈빈곤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고, ‘탈빈곤 적 탈수급’이나 ‘성공적’ 탈수급은 소득 증가가 수급권의 탈피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탈빈곤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한국 복지패널 중에서도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패널에서 추출된 것으로, 특히 14인의 질적패널 빈곤가구주의 경우,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가 혼재되어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탈수급/탈빈곤 전망에 대한 논의는, 수급권자의 제도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 및 전체 빈곤가구주의 탈빈곤 전망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였다.

### 2.2 기존연구 검토 및 탈수급/탈빈곤 전망

패널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양적연구들에서는 빈곤의 역동성을 절대적 빈곤선이나 탈수급과 같이 뚜렷하게 측정가능한 변수들을 빈곤 지위의 변화로 정의하고, 이들을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Table 1>은 기존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시장 변수, 제도적 변수 등 상당 부분 유사한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빈곤제도 관련 변수들과 연구 대상자들의 인식 및 심리 상태에 대한 변수들이 포함되어있어, 보다 다차원적인 빈곤연구가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다. 일례로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우울과 탈수급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10], 자존감과 주관적 전망이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8]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Ah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이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합리적 선택모형 중심접근은 기대모형의 관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수급자의 수급유지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실패의 경험을 겪으며 가족해체, 재산소진의 과정에서 무기력증을 체득한 측면도 있어서 단순히 인센티브만으로 탈수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수급자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빈곤층에게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여 탈빈곤정책이라는 블랙박스를 통과하면 탈수급이 이루어진다는 단선적이 사고가 아니라, 블랙박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탈

빈곤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질적분석 결과의 해석과 확인을 위한 양적자료 분석을 혼합연구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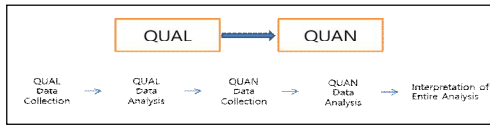
<Table 1> Researches on Poverty Dynamics

Researcher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Policy Implications
Keum & Kim (2001)	female(-), age(-), education(-), asset(+)	poverty exit	job creation, decent job
Ku et. al. (2008)	male & education(+), health(+)	welfare exit	female job
Im (2006)	employment(+), poverty duration(-)	poverty exit	job security
Kim & Rho (2009)	female(-), age(-), education(+), local(+/-)	poverty exit	local level welfare
Yoo & Park (2009)	age(-), working family(+), elderly(-)	poverty exit	gender based policy
Lee (2010)	age(-), education(+), health(+), children(-)	welfare & poverty exit	facilitating welfare exit
	welfare duration(-)	welfare exit	
Ahn et al. (2011)	welfare duration(-), male(+), education(+)	welfare exit	expectation model

### 2.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혼합연구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결합하여 탐구하기 위한 접근으로<sup>1)</sup>, 단순히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양적연구로 검증하여 연구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13,14]. 즉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의 변화와 탈수급/탈빈곤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후, 양적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Creswell(2009)에 따르면 질적 분석을 선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적 분석을 시도하는 순차적 탐구전략(Sequential Exploratory Design)에 해당한다. [Fig. 1]은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 연구 방법론적 융합은 갈수록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질적연구에서 현상학 방법의 융합적 접근[18]을 시도하거나, 대학생들의 성취도나 만족도 조사에서도 통계방법론과의 융합을 시도하는[19] 등의 연구들이 그 예이다.



[Fig. 1] Sequential Exploratory Design(Creswell, 2009)

### 3. 질적분석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질적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의 1-3차년도 자료 중 세 개의 웨이브 자료를 모두 갖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이다. <Table 2>는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빈곤경험, 탈수급/탈빈곤 노력과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nel Interviewees (n=14)

Panel No.	age	sex	Experiences	Welfare/ Poverty Exit Efforts	Prospects of Exit
Panel 1	57	F	mom died, welfare exit, suicide thinking	incompetent son	despair
Panel 2	49	F	graduate college	searching decent job	keep eligibility
Panel 3	60	F	daughter's employment	IDAs, insurance	burden daughter
Panel 4	42	F	reduced benefits	web mall business	keep working
Panel 5	38	F	enter graduate school	wait exiting	hard to find decent job
Panel 6	48	F	bad health	procrastinate work	despair
Panel 7	35	F	third child born	part time working	economic hardship
Panel 8	41	F	resignation (insurance co)	searching new job	afraid poverty hand down
Panel 9	40	F	loan, trouble with husband	own business	afraid poverty hand down
Panel 10	46	F	divorce, tutoring job	keep working	work= self-esteem
Panel 11	54	F	bad health, mom-in-law died	part time working	better suicide than hand down poverty
Panel 12	51	F	family loan	care giver work	welfare makes man lazy
Panel 13	59	F	married with new husband	paid volunteer	husband helped
Panel 14	55	M	compensation (real estate)	keep working disappointed	compensation helped

연령대는 35세에서 60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여성이 13명이고 남성이 1명이다. 2013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는 6명이며, 나머지 8명은 비수급 상태였다.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노모의 사망과 아들의 대학포기로 가구원수가 줄고 추정소득이 생겨서 탈수급을 경험했던 1인(패널 1)을 제외하고는, 수급지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양적연구에서 본다면 수급지위에 대한 변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어, 지위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이 분석이 힘들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질적 분석에 따르면, 삶의 경험의 변화와 인식의 맥락에서 이들의 탈수급/탈빈곤 전망도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어, 양적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 3.2 삶의 경험의 변화, 그리고 인식

여기서는 지난 3년간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빈곤과 관련된 삶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 3.2.1 고단한 삶의 연속

본 연구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빈곤한 삶의 고단한 경험을 지속하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었다. 치매노모의 사망(패널 1)이나 시모의 사망(패널 11)과 같이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한 경우는 제대로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회한의 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가 탈수급을 초래할 경우에는 (패널 1)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이 극에 달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들은 계획했던 탈빈곤 노력을 실행할 수 없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패널 6, 11). 또한 탈빈곤의 희망으로 생각했던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거나 게임중독, 가출 등의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패널 1, 14).

*제 마음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5년 뒤에는 아이가 돈을 벌고 하면 나아질 것 잡았는데, 애가 또 그렇게... 마음을 못 잡고(벗나가고) 그러니깐. 제가 실망해가지고.. (패널 1)*

##### 3.2.2 빈익빈 부익부, 빈곤의 대물림

고단한 삶의 연속에서 결국 자녀에게도 빈곤이 대물

림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출발점이 달라서 노력해도 안된다는 생각은 절망적이기도 하다.

*제가 지금 최고 걱정이 가난을 아이들한테 되물려 주는 것이 최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먹을 것은 있다고,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더라고요 (패널 14)*

*가난이 가난을 물려주는가봐.. 맞는가봐, (대책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요 (패널 1)*

*대부분의 있는 집 자식들이 잘되고 계속 잘되는 게 대물림 되잖아요? 근데 못사는 집들은 자식 못 가르치니까 계속 가난하게 되고. 그 밑에서 밖에 못 놀아요 (패널 8)*

### 3.2.3 자녀에게 짐되지 않기 위한 노력

자녀의 성장 및 취업에 따라 탈수급이 예상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패널 3)등을 통해 당면한 탈수급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포기상태가 되면, 나중에 자녀에게 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패널 7).

*응~인자 왜 했다면은, 자식인데 나중에 내가 그런 거라도 안들어놓으면 자식이 고생인데. 아파가 막 그래봐라. 자식이 뭐 자꾸 엄마한테 그 돈 병원비 대줄라고 해봐라. 그거 우짤끼고... 딸이 뭐...지 시집가서 잘 살면 되는데...(패널 3)*

*우리 아들 어느정도 키놓고 나면 크고 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냥..이승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막 아프고 막~~ 힘들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애들한테 내가 애들한테 내가 피해만 주지 않고...(패널 7)*

### 3.2.4 예상 밖의 도움과 탈수급/탈빈곤

탈수급을 경험한 경우, 때로는 1,2차 년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여 경제적 형편을 돕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패널 13)은 올해 재혼하여 남편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전까지 배상금 지불 문제와 나쁜 건강으로 고단한 삶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적 환경이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새 남편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다. (패널 14)는 IMF 이후의 빚잔치를 마감해가는 과정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고,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예측치 못한 행운에 가까운 경험이었다.

### 3.2.5 교육과 탈수급/탈빈곤: 수급권의 가치

한편,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직장을 잡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탈수급/탈빈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직장을 일단은 가져야 가능할거 같아요. (패널 4)*

*일자리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돈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근데 인재 이것도 문제게, 멀쩡한 대학 나와서도 일 자리 구하기가 힘뎀웃음 이 마당에... 정말.. (패널 10)*

실제로 두 명의 한부모 가족 수급권자(패널 2, 패널 5)가 3차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이들의 구직 노력은 이전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들은 막상 대학을 졸업하게 되자 오히려 탈수급이 더 어렵게 되는데, 그 이유는 취업을 통해 얻는 급여로 어린 자녀를 키워내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급권이 갖는 유무형의 가치를 계산해보고, 좋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취업을 유보하고 있다.

*한 달에 대략적으로 우리 애기가 급식비 받는 거라든가 이런걸 계산해보니(수급권의 가치가) 한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여길 벗어나면.. (패널 5)*

### 3.2.6 빈곤의 경험과 자존감의 회복

빈곤층에게 빈곤의 경험은 자존감의 상실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 ‘필요한 사람’, ‘자신의 가치’, ‘당당함’ 등의 표현들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탈수급/탈빈곤을 향한 중요한 단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은 스스로를 ‘추리는’ 기능을 하는 측면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일할 수 있는 거... 돈도 돈이지만, 일단 빈곤으로 인해서 느끼는 상실감이나 자괴감이 크잖아요. 삶을 이끌어 가는 데는 자기가 조금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게,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힘이 되게 클 텐데 (패널 10)

내 밖으로 나와서 돈을 조금을 벌든 많이 벌든 나의 가치를 높이라고 하고 싶어요. 나를,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만이 자식 키우는 것이나 그런 면에서 당당할 수 있고.. (패널 8)

달라지려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부터 이제는 더 추리고 (패널 2)

### 3.3 탈수급/탈빈곤 전망

앞서 제시했듯 탈빈곤 전망은 수급권자에게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며, 비수급권자에게는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해 빈곤선 보다 나은 경제적 수준을 이루는 전망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질적패널 3차년도에 나타나는 경험과 인식의 변화들이 이들의 탈수급/탈빈곤 전망과 어떻게 맥락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3.3.1 제도적 탈수급 이후의 경험과 탈빈곤 전망

실질적인 소득 증가 없이, 수급가구원 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제도적 탈수급을 한 경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탈빈곤에 대한 전망 역시 낮아지게 된다. (패널 1)은 치매 노모의 사망에 따른 가구원 수의 변화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아져 수급권 탈락을 경험하였고, 또한 탈빈곤의 희망이었던 아들의 방황하자 체념과 우울에 빠져 매우 낮은 탈빈곤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빈곤정책은 빈곤층의 탈수급을 유인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탈수급이란 언제든 다시 수급 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미완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에게 빈곤이란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궁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관계와 좌절,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는 빈곤을 물려준다는 죄책감(패널 3, 7)까지 포함하며,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었다.

#### 3.3.2 탈빈곤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

수급권자의 경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지속적 탈빈곤이 가능한 탈수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기에는 너무도 많은 장벽들이 있다. 빈익빈 부익부와 빈곤의 대물림에 대해 자책하며 고민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유일한 탈빈곤의 방법이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약간의 소득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획을 세워가며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장기적인 탈빈곤의 해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와 교육급여가 제공되는 수급권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가구주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는 등의 인적자본 향상이 이루어져 약간의 소득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탈빈곤적 탈수급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제도적 탈수급을 기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패널 2, 5). 이들은 가구 소득이 일정 정도 증가하여 탈수급을 한다 해도, 그 소득이 현물급여를 포함한 수급권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오히려 가족을 더 빈곤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이들에게 탈빈곤적 탈수급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 3.3.3 비수급 근로능력자의 탈빈곤에 대한 전망

비수급권자의 경우라도 대다수가 고단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고민, 자녀에게 짐될까 두려운 마음은 수급권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탈빈곤 전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수급권자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빈곤이라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탈빈곤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패널 8, 10, 11, 13). 이들에게 근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그것이 당당한 삶(패널 8)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삶(패널 10)이라고 생각한다.

## 4. 양적분석

여기서는 질적분석에서 드러난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탈빈곤 전망을 바탕으로 양적분석을 위한 개념과 가설을 도출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이후 질

적패널 3차 자료와 같은 해에 이루어진 양적자료인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를 활용한 양적분석을 통해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는 질적연구에서 다루었던 탈수급이나 탈빈곤과 관련된 전망이 변수로 제시되어있는 자료이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질적연구 3차패널과 연계된 자료라는 점에서 가설검증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 4.1 질적분석에 기반한 추론적 가설

##### 4.1.1 탈수급자 경험과 관련된 가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이후 경험에 대해 드러난 인식은 탈수급이 탈빈곤과 별개이며 제도적 탈수급은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이 제시되었다.

[가설 1] 제도적 탈수급자의 생활전망은 수급자보다 낮을 것이다.

##### 4.1.2 탈수급 전망에 대한 가설: 교육의 효과 I

기존 연구에서 종종 제시되어왔던 교육의 긍정적 탈수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 그 자체로 탈수급 전망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교육의 효과는 인적자본의 향상 효과도 있고 좋은 직장의 가능성도 높인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좋은 직장을 얻어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차라리 근로를 유보하고 수급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었다. 오히려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추리며, 미래를 꿈꾸며,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여주는 사례들은,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을 높이기보다, 교육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 교육수준은 생활전망과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3 탈빈곤 전망에 대한 가설: 교육의 효과 II

질적분석에서 나타난 탈빈곤 전망에 대한 분석들은, 탈수급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 생활전망, 자존감 등이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이 경우,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자존감을 매개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달리, 교육이 직접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는 수급권자들이 탈수급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세우는 것과 달리, 탈빈곤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하는 대상이어서, 교육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3] 교육수준은 탈빈곤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활전망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를 포함한다.

#### 4.2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이상의 가설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연구모형이 가능하다. 우선 제도적 탈수급자의 생활전망 [가설 1]은 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으로 변량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 탈수급 전망에 미치는 영향 [가설 2]과 탈빈곤 전망에 미치는 영향 [가설 3]은, 잠재변수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는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모형을 활용한다. 변량분석은 SPSS14.0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은 AMOS 6.0을 사용하였다.

양적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적 탈수급에 대한 정의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을 경험한 가구 중, ‘친인척 등의 도움’, ‘가구원 수의 변화나 조사 결과의 변화’, ‘재개발’ 등으로 추정 재산이 늘었지만, 실질 소득증가 없이 탈수급을 경험한 것으로 하였고, 그 이유가 ‘근로소득의 증가’, ‘가구원의 취업’인 경우 ‘탈빈곤적 탈수급 가구’로 정의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될 교육수준은 최종학력과 직업교육 기간을 연단위로 전환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을 나타내는 비경상소득과 성, 연령, 부양아동수, 가구내취업자수,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Esteem Scale로 측정된 결과 값을 활용하였고, 생활전망에 관한 변수는 생활형편, 행복, 부채, 소비지출 전망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한 변수를 합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향후 생활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종속변수인 탈수급 전망은, 향후 얼마후에 탈수급이 가능한지 전망을 묻는 질문을 5점 척도로 전환하고, 수입, 자산, 취업과 관련된 전망 점수와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탈수급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탈빈곤 전망은 수입, 자산, 취업과 관련된 전망 점수만 합산하였다.

### 4.3 연구결과

#### 4.3.1 집단간 비교 ANOVA: [가설 1]의 검증

<Table 3>은 집단간 평균차이에 대한 가설을 변량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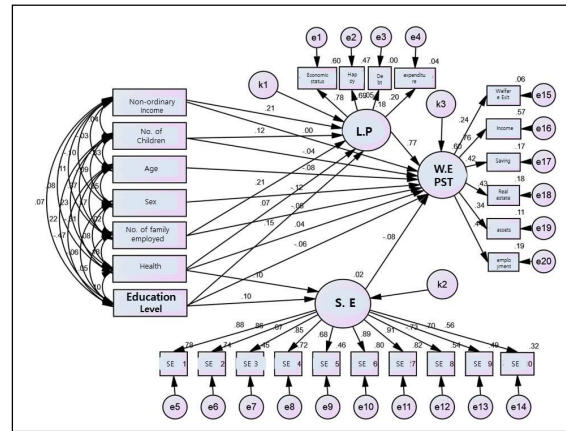
제도적 탈수급자의 생활전망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집단비교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현재 수급가구원(N=1,189), 제도적 탈수급 가구원(N=39), 탈빈곤적 탈수급 가구원(N=23)이다. 이에 따르면 제도적 탈수급 집단의 생활전망(8.0)이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9.0)은 물론 심지어 수급 집단(8.8)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 이러한 발견은 제도적 탈수급 집단이 가장 비관적인 생활전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질적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설 1]은 양적분석으로도 지지되었다.

<Table 3> Livelihood Prospects by Recipients Group

Recipients Groups	Recipients	Institutional Welfare Exit	Welfare Exit by Poverty Exit
No.	1189	39	23
Ave. Score	8.8	8.0	9.0
$t/F = 4.81^{**}$			

#### 4.3.2 탈수급 전망에 대한 SEM: [가설 2]의 검증

탈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가구주 1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Fig. 2]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가 AMOS를 활용하여 제시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교육수준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생활전망, 종속변수인 탈수급 전망 간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92.884$  ( $df = 294$ ,  $p < .001$ )이며, RMSEA = .060, CFI = .868, IFI = .875, TLI = .831이었다.



[Fig. 2] SEM Model on Welfare Exit Prospect

독립변수인 교육수준(Education Level)의 경우 탈수급전망(Welfare Exit Prospect: W.E.PST)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06$ ,  $p > .1$ )으로 나타났지만, 생활전망(Livelihood Prospect: LP)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5$ ,  $p < .1$ ), 생활전망은 다시 탈수급전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7$ ,  $p < .01$ ). 이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Self-Esteem: S.E)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연구와 일맥상통하였으나, 통계적 유의도는 높지 않았다( $.10$ ,  $p > .1$ ). 자아존중감이 탈수급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08$ ,  $p > .1$ ). 이상의 결과들은 교육이 생활전망과 자존감을 매개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를 일부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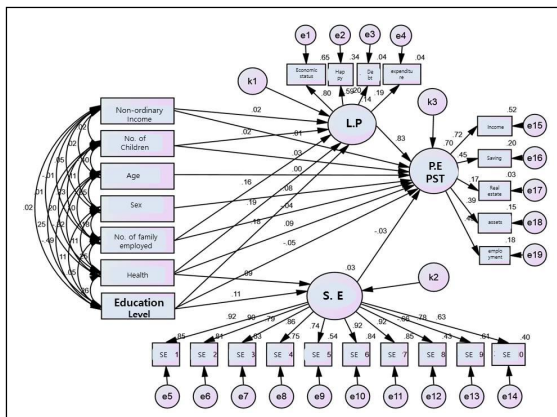
<Table 4>는 탈수급 전망에 대한 SEM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변수 간 효과를 직접, 간접,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것이다. 교육수준이 탈수급전망에 미치는 총효과(.043)은 직접(.061) 및 간접효과(.104)로 구성되어 있다. 간접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변수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육수준에서 탈수급 전망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경로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상세 분해한 결과, 교육수준→생활전망→탈수급전망 경로의 간접효과는  $.113 (= .146 \times .772)$ , 교육수준→자아존중감→탈수급전망 경로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는  $.009 (= .105 \times .085)$ 로 나타나,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Table 4> Summary of Effects on Welfare Exit Prospect

Categories	Welfare Exit Prospect (W.E.PS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ducation Level	.043	-.061	.104
Indirect (L.P)			.113
Indirect (S.E)			-.009

4.3.3 탈빈곤 전망에 대한 SEM: [가설 3]의 검증  
탈빈곤 전망에 대한 분석 대상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주 5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Fig. 3]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며, 적합도는  $\chi^2=853.58(df=269, p<.001)$ , RMSEA=.061, CFI=.889, IFI=.891, TLI=.856으로 나타났다.



[Fig. 3] SEM Model on Poverty Exit Prospect

[Fig. 2]와 마찬가지로 [Fig. 3]에서도 교육수준은 생활전망(.18,  $p<.01$ )과 자아존중감(.11,  $p<.05$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생활전망은 탈수급전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3,  $p<.01$ ). 이는 질적연구에서 발견한대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빈곤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설 3]에서 제시한대로 교육수준 자체가 탈빈곤 전망(Poverty Exit Prospect: P.E.PST)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05,  $p>.1$ )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이나 자아존중감은 높일 수 있지만, 경쟁적인 시장에서 교육수준의 향상만으로 좋은 직장을 얻어 탈빈곤을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5>는 탈빈곤 전망에 대한 SEM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변수 간 효과를 직접, 간접,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것이다. 교육수준이 탈빈곤전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총효과(.095)는 직접효과(.052)와 간접효과(.147)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변수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육수준에서 탈빈곤 전망 경로 가는 각각의 간접효과를 상세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생활전망→탈빈곤전망 경로의 간접효과는 .150(=.182×.826), 교육수준→자아존중감→탈빈곤전망 경로의 간접효과는 .003(=.112×.032)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에 비하여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ummary of Effects on Poverty Exit Prospect

Categories	Poverty Exit Prospect (P.E.PS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ducation Level	.095	-.052	.147
Indirect (L.P)			.150
Indirect (S.E)			-.003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수급/탈빈곤 전망을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방법론적 융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전망’이라는 개인적 인식과 관련된 현상에 관심을 둔 이유는, 갈수록 주관적 인식과 전망이 탈수급/탈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8], 질적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상자의 인식과 전망을 양적연구로 가설화하여 검증해보려는 방법론적 융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질적분석 결과 수급자의 경우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으로 분리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15,16]들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수급권자들은 제도적 탈수급이 탈빈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다시 제도적 탈수급 집단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생활전망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양적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수급층을 포함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질적분석 결과는, 이들이 수급자들이 경험하는 고단한 삶을 비슷하게 경험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과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이들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교육이 탈빈곤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을 높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경쟁적인 시장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 탈빈곤이라는 지위변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 이들의 실제 생활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탈빈곤 전망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탈빈곤을 유도하지 못하면, 수급자는 오히려 탈수급을 꺼리게 될 것이고, 제도적 탈수급자는 여전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탈빈곤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탈빈곤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의 병행과, 생활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심리적 접근 전략<sup>2)</sup>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ACKNOWLEDGMENTS

This study is based on author's participation on [Qualitative study project link to Korea Welfare Panel Study(3rd wave)] launch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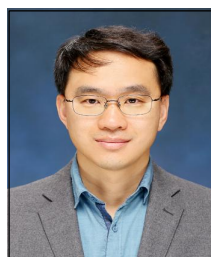
2) 최근 물질적 빈곤 연구 위주의 경향을 벗어나 심리적 접근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우울[20,21,22,23], 정서[24], 심리적 복지감[25,26] 등 다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전망을 밝히고 있다.

## REFERENCES

- [1] I. H. Ku. "Poverty Dynamics in Korea: Poverty Duration and its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No. 2, pp. 351-374, 2005.
- [2] J. H. Keum, S. T. Kim, "On Poverty Dynamics in Korea. Yeonsei Economics Studies", Vol. 8, No. 2, pp. 511-539, 2001.
- [3] K. S. Kim, H. J. Roh, "An Empirical Study of Poverty Exit and Duration.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3, pp. 185-212, 2009.
- [4] E. H. Kim, "Determinants of the Working Poor Women's Poverty Exit.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3, pp. 239-268, 2009.
- [5] T. K. Yoo, H. J.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Poverty Exit..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5, No. 3, pp. 29-58, 2009.
- [6] S. H. Im, "The Determinants of Poverty-Exit Possibilit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2, No. 2, pp. 253-277, 2006.
- [7] E. J. Ji, "The Determinants of Working Poor' Poverty-Exit Possi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9, No. 3, pp. 147-174, 2007.
- [8] S. Y. Ahn, I. H. Ku, W. J. Lee, "Determinants of Exit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Social Welfare Policy", Vol. 38, No. 1, pp. 199-226, 2001.
- [9] W. J. Lee, "Welfare Dynamics in Korea Determinants of Welfare Exi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3, pp. 5-29, 2010.
- [10] W. J. Lee, "Depression and Welfare Transition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4, pp. 249-274, 2010.
- [11] K. S. Kim, "A Critical Review of Poverty Studies in Social Policy.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18, No. 1, pp. 43-82, 2011.
- [12] J. Y. Jo, "A Study on the Methodological Preferences in Poverty Research Trend.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19, No. 4, pp.285-312, 2012.

- [13] J. W. Cresswell,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2009.
- [14] J. W. Cresswell, V. Plano Clark,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2007.
- [15] S. Cellini, S. McKernan, C. Ratcliffe, "The Dynamics of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Data,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27, No. 3, pp. 577-605. 2008.
- [16] E. Yeo, M. K. Kim, K. Y. Kim, W. S. Im, Y. B. Ko, "An Evaluation of Eligibility and Benefit System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4.
- [17] D. M. Roh, I. Won, "A Study on the Welfare Exit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7. pp. 333-360, 2011.
- [18] Y. H. Jeong, "Convergent approach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bout Emergency Nurses' experience of hospital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63-75, 2015.
- [19] S. Choi, K. Choi,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research of the undergraduate orchestra club activities: A convergent aspects of statistical method and opinion mi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5-31, 2015.
- [20] Y. B. Kim, S. H. Lee, "The Depressive Symptom and Poverty in Later Lif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overty and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12. pp. 401-411, 2015.
- [21] S. H. Cho,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12. pp. 423-431, 2015.
- [22] M. J. Kwon,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1-176, 2015.
- [23] H. J. Choi, S. G. Back, "A Study on Depressive disposition by Convergence approach of Leisure History and Family situation i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95-302, 2015.
- [24] E. J. Lee, "Factors Affecting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of Welfare-to-Work Recipients: Focused Social Adapt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2. pp. 539-548, 2014.
- [25] K. M. Choi, W. K. Im,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the Culture and Education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6. pp. 55-67, 2015.
- [26] S. H. Choi, S. H. Song, "The Effect of elderly Wisdom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12. pp. 49-59, 2014.

조 준 용(Jo, Joon Yong)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7년 12월 : U.C. Berkeley, School of Social Welfare(Ph.D)
- 2008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정책, 빈곤, 자활
- E-Mail : joyhallym@hallym.ac.kr